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내게 생긴 일은 모두 내탓 일뿐

여러 분께서 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걸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재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를 돌면서 각 사찰을 봐도 그렇고, 각 종교를 봐도 그렇고, 마음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모두 타에서 구하지 자에서 구할려고는 생각들을 안합니다. 물론 말들은 '나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알아라' 이러지만 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얼굴을 하늘에다가 쳐들고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들 여러분이 '내가 이만하면 뭐 제일 잘 살아왔고,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하고 사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대로의 차원이 있어서 자기가 얼마만큼 살았든, 차원이 높든지 낮은 지간에 모든 것은, 자기 차원에 의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지나오면서, 앞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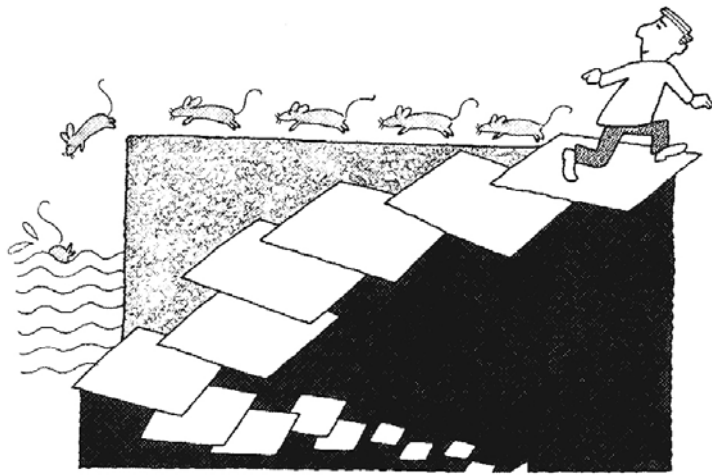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신이라는 것을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바깥에도 다 평등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하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화해서 바르나투고 진화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이러한 거죠.

물에 서 노는 거나 들에서 노는 거나, 모든 짐승들도 자기가 확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금만 거라도 만약에, 이 지느러미가 잘못돼 가지고 그 물 속을 활보하지 못한다면 지느러미를 나오게 하고, 또 내리막을 잘못 밟을 때는 앞발을 좀더 짧게 하고, 또 평지에서 많이 못 될 때는 다리를 좀더 길게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높여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차원에 따라 하천 세계에서 무척 올라오고, 중천 세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뭐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아이구 이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런 공부는 해 뭘해, 죽으면 그만일 거'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진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말씀입니다. 어느 고을에 쥐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큰 가족이 됐더랍니다. 어느 해 그 고을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 다른 고을로 먹을 걸 찾아 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느 거사가 길을 지나다가 보니 쥐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깐 말씀입니다. 벽에다가 방을 찾아 놓기를 '옛날 흥년을 해주는 데 아주 참 듣기 싫다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을 내가 사위를 삼는다' 이렇게 어느 정승이 방을 붙여 놔거든요.

그래 이 거사가 쥐가 강을 건너는 걸 봤잖아 그리로 간 거예요. 가서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을 했죠. "쥐 한 가족이 크게 살고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그 쥐가 사는 고을에 흥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그게 자기 고을인지도 모르고 궁금해서 묻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지금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려면 먹을 게 많으니

16면으로 계속

사람사는 게 발자국 떴는 것 같아 고정된 게 없고 모두 공했기에 그냥 놓고 가면 여여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과 저 동물에 가까운 사람, 또는 그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생각해 볼 때 50%는 멸하고 50%는 생하는데 수레와 같이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 어떤 기계에 사과나 토마토나 이런 물건들을 쏟아 넣었을 때 작은 것·큰 것·아주 작은 것 등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분리해서 떨어지면 그것을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찡기게 됩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그렇게 하고 갑니다.

역직을 지나가면서 또 앞으로 또 지나오면서, 겪는 그 집착 또는 관습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더기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누더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본래 발자국 떴어놓는 것과 같아서 한 발자국 떴어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한 발자국 떴어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공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으니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한 거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끈이 안되는 거예요. 그 관습에 의해서 말합니다. 살아나온 그 누더기가 붙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여여한 거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그냥 우리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서 하나도 걸릴 게 없고 하나도 걸릴 게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기쁘게 살게요. 이때도 하하하 기쁘게 살아가는 거야. 오히려 요만한 하나라도 끊어서 부수려는 거 만들어 가지고는 걱정 근심을 하면서 야단법석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하천세계에 사는 생명들은 어떻게 사나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이 짐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짐

"안팎경계 닳치는 대로 굴러 넘기며 그냥 싱그럽게 살면 고통 없습니다"

승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수레에 굴러서 다 자기 차원대로 나누어 지니까요. 그 차원에서 고통할 수 없습니다. 그거야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물을 중에도 참 고차원적인 인간이, 99%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찰 나 요렇게 돌리면 될 것을 그렇게 누더기가 붙어서 돌리질 못합니다. 모두가 공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는 거다. 그대로 공해서 고정되게 놓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아니 하루살이가 다 됩니까, 일초살이처럼 허허허, 그냥 밟고 가면서 그저 오는 대로 닳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바깥에서 닳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러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은 삶을 어지럽고 괴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딱해서 어떤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여러분한테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본 일초도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이런 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다 먹어야 다 풀 수 있다' 이런데서 이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나 아님이 없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요거 하나 착을 둔다면, 그 습을 가지고선 습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습성이 그냥 양극처럼 앉아 있어서, 아무리 떨려고 애를 써도 떼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떨려고 해서 떼어지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떼어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다 되놓는 것 밖엔 없습니다. 진짜로 믿는다

면 죽으나 사나, 당장 이 하늘이 무너져서 쪼개진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이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걸릴 듯고 거기가 놓을 수 있어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나도 수 해를 두고 그걸 실험을 하고, 또 닳치면 또 실험을 하고,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닳치게 해서 또 실험을 하고,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네 마음은 진짜로 그렇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고, 실험을 해본 지가 근 십년이 넘어갔습니다. 깨달아 가지고도 그만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몽땅 다 떨려면 떴는 게 아니고 그냥 놓는 건데, 우리 살아나가는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몸통이 하나를 가지고도 더불어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없다. 내 몸 속에 들은 생명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더불어 보고, 같이 더불어 듣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고, 평등한 나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인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94

길을 가다 었어졌으면 그 자리를 딛고...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에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한다. 이렇게 진실히 맡겨 놓을 때 모든 것이 인과 응보로 나온 것이니 나온 거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이치가 있다. 예를 들어 병도 인과 응보이니 었어졌으면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 놓는 것이니까 자기가 풀어야 하고, 또 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놓으라는 것이니 병을 예로 들면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 주인공이 고쳐라, 주인공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여 녹을 테이프가 재생되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생에 녹음된 것들이 연이어 경계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그것에 일일이 오목 칠정으로 응하다 보면 또 내생에 다가오는 업을 재녹음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경계 그 자리에서 놓고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심하게 경계를 맞고 보 내면 녹음 테이프를 지우는 것과 같아 공 테이프가 되게 될 것이다. 이미 녹음된 것은 다가오는 경계로서 끝나고 더 이상의 녹음은 없게 된다.

길을 가다가 었어졌으면 었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선업·악업을 지었다면 그 지은 자리에다 되놓아야 무너진다. 그것이 새롭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것이다.

연짚은 일, 괴로운 일이 닳았다. 혹은 닳쳐를 것이다 했을 때 웃음을 머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러 놓는 게 중요하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록으로 나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가고 싶다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생시에 기차를 보지 못한 사람은 꿈에서도 기차를 모른다. 생시에 불이 뜨거운 줄 알았기에 꿈에서도 불을 보면 뜨거운 줄 안다. 현실에서 집착하면 꿈에서도 집착한다. 현실과 꿈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꿈에 도깨비가 보이고 부처가 보이고 조상이 보이고 불의별 것이다 보았다 해도 다 제 마음이 형상화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생시에 보고 듣고 제 마음으로 그리고 했던 것이 다 마음의 나뭇가지라고 믿고 놓아버린 사람은 꿈에 부처가 보이더라도 마음이 그려 보인 것인 줄 알기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음의 나뭇가지라고 관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히 나쁘다 좋다, 높다, 낮다, 예쁘다 보기 싫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와 더불어 평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거에 진 것을 오늘에 녹이고 미래에 갈 것도 오늘에 녹여라. 과거에 진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미래에는 습이 붙을 일이 없다. 현재에 붙을 것이 없다면 언제 미래에 붙을 것이 있겠는가. 오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마치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내게 되돌아오듯 자기한테로 되돌아온다. 공명히 속상해 하고 꼬부장한 마음을 갖는다면 속상한 일과 꼬부장한 일만이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풀 수 있어 보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이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벗어나 풀 수 있어 보라. 지난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 생애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된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버려라.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짐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줄 훑기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놓으라'고 하니까 '놓고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

러나 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 수가 있는 법이다. 중생의 마음 쓰심이는 일일이 생각을 지어서 일을 해야만 이치에 맞는 줄로 여기지만 도인의 마음쓰심은 일일이 생각을 내지 않고 풀 수 있어 있으면서도 조금의 번들도 없이 법에 맞게 된다.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참된 수행자의 일상 생활은 그대로가 도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행주좌와가 그대로 법에 맞게 때문이다.>

가질 것이 없으니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질 것이 없다. 일부러 마음으로 짚어지고 다니지 말고 놓고 다녀라.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놓아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얻을 것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과 던져라. 던지면 건진다. 겁을 낸다면 일임해도 되질 않는다. 맡겨 놓는다 하는 것은 결과까지도 놓고 맡기는 것이다.

협찬: 주인공